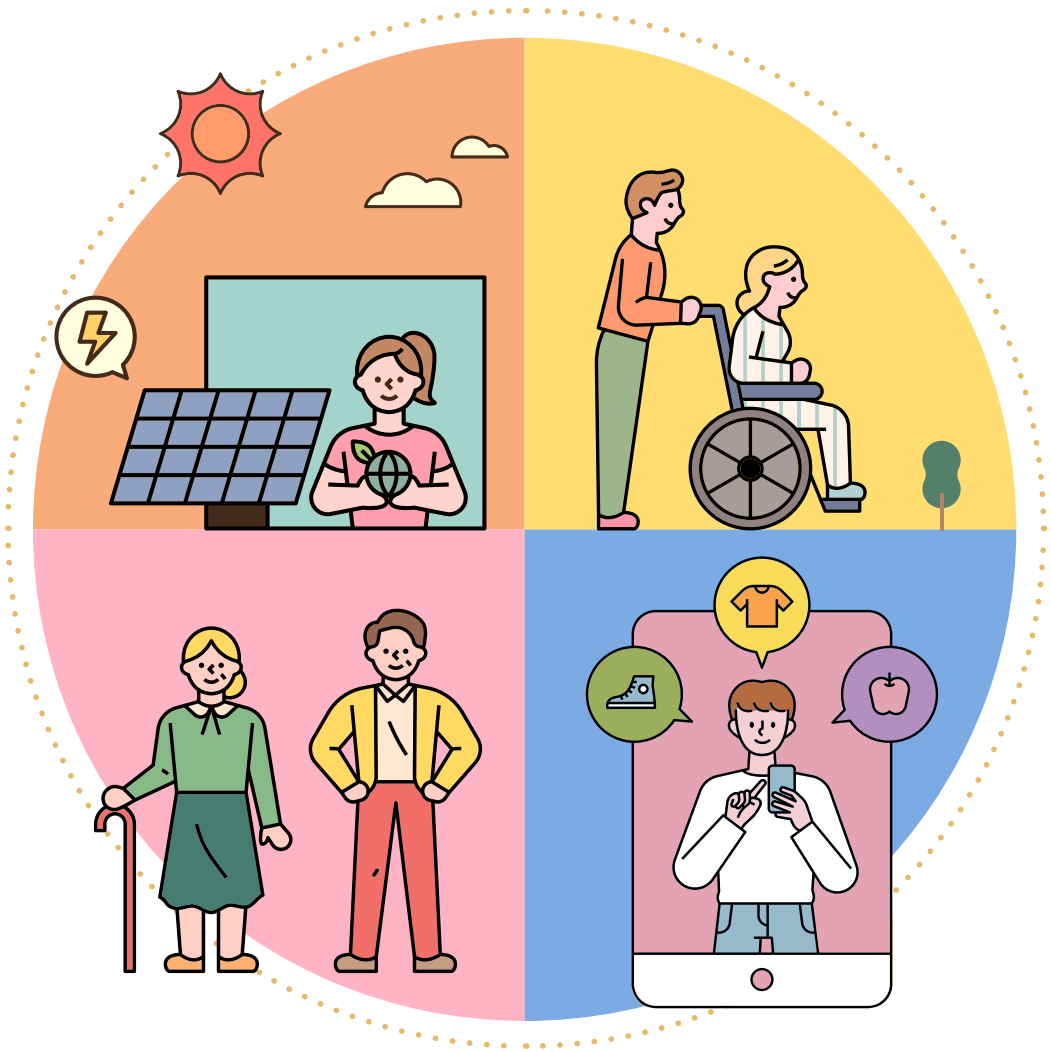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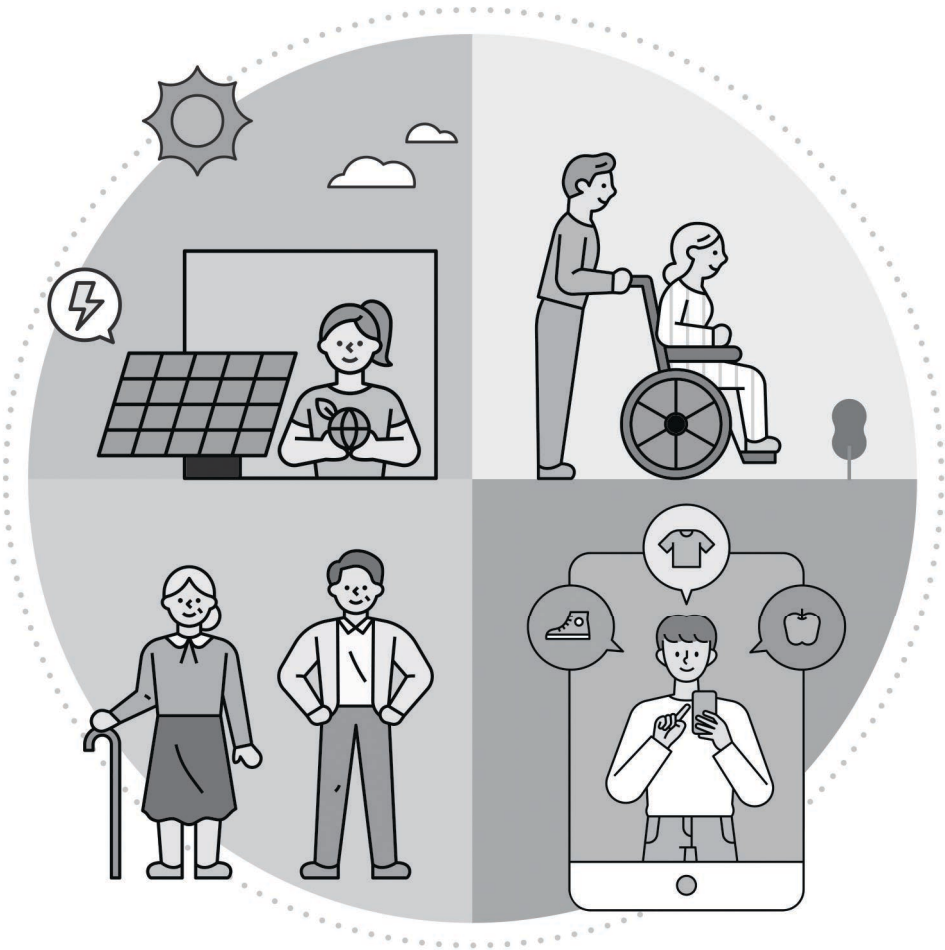
같이의
가치를
쌌다

2021 혁신형 협동조합 사례집



같이의
가치를
쌓다

2021 혁신형 협동조합 사례집



contents



녹색 분야



4



강서양천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12



등근햇빛발전
협동조합

20



한살림햇빛발전
협동조합

일자리 분야



28



사회적협동조합
후먼케어

36



서울디지털인쇄
협동조합

44



협동조합판

과학기술 분야



52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60



위즈온협동조합

사회서비스 분야



68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76



세종우리협동조합

1 강서양천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지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조합원들이
똘똘 뭉쳤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한 이들이 있다. 바로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들은 서울시 내 햇빛발전소를 세워 전기를 생산하며 조합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자원순환활동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숍 '지구 살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을 위한 환경에 의한 조합,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만나보자.

지구 ☀️ 살림 ☁️ 터

당신의
용기를
환영합니다

☁️ 지구살림터 이용설명서

- 물건을 살 때는 정바구니를 꼭 가져와요.
- 소분용 물품을 살 때는 용기를 정겨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요.
- 분리배출이 힘든 플라스틱 병뚜껑, 우유통 아이스팩을 모아 깨끗이 세척해 갖고 오시면 소정의 친환경 제품을 드려요.
- 길에서 잡히고 있는 예쁘쁜, 줄이송알뱀, 물리뱀, 알구기 같은 플라스틱 등을 깨끗이 세척해 가져오시면 다른 분들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너/대량공 설치 상담도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

지구살림터 운영시간
월 휴무
화-토 오전11시~오후8시
일 오후1시~5시

♻️ 멀균팩을 찾습니다.

♻️ 종이팩은
종이가
아니다

♻️ 분리배출 이렇게 해요

이사장 이현주
설립일 2016.09
주요사업 햇빛발전사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도소매업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Tel 070-7670-1004

조합 연혁

- 2016. 08. 협동조합 창립총회
- 2016. 09.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
- 2017. 08. 1호기 회원중 햇빛발전소(48kW) 완공
- 2019. 12. 2호기 대일관광고 햇빛발전소(84kW) 완공
- 2020. 08. 3호기 양천햇빛공유발전소(95kW) 인수
- 2020. 11. 4호기 영남주차장 햇빛발전소(71kW) 완공
- 2021. 04. 제로웨이스트숍 '지구살림터' 개점
- 2019~현재. 지역사회(학교, 복지관 등)에서 에너지교육 진행



햇빛발전 사업을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

요즘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는 기후위기다. 이에 도심에서도 태양광 패널이 부착된 건물이나 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보다 앞선 2015년부터 폭염, 폭우 등을 체감했던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2015년 겨울, 박승옥 당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으로부터 강서양천지역에 협동조합을 만들어 학교 햇빛발전소를 설립·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협’)과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 12월부터 추진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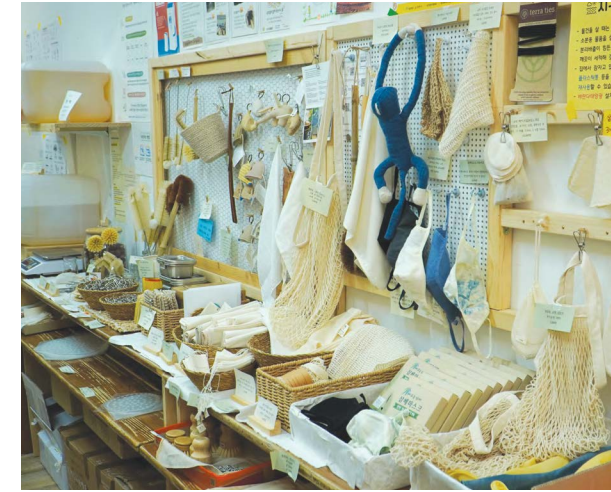
추진위원회는 강서아이쿱, 양천아이쿱, 인드라마생활협, 한살림 서부지부, 행복중심 서남생협과 양천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이하 ‘양생단’)이 참여해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햇빛발전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때 박승옥 이사장이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햇빛발전 사업 전문가를 연결해주어 햇빛발전 사업에 대한 콘텐츠를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6개의 협동조합이 연합해서 추진위원회를 진행하다 보니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의사결정 과정이 오래 걸렸다. 또 이사장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스러운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운영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던 중 이현주 양생단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고 2016년 8월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치렀다.

“햇빛발전 사업의 특성상 시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업이다 보니 협동조합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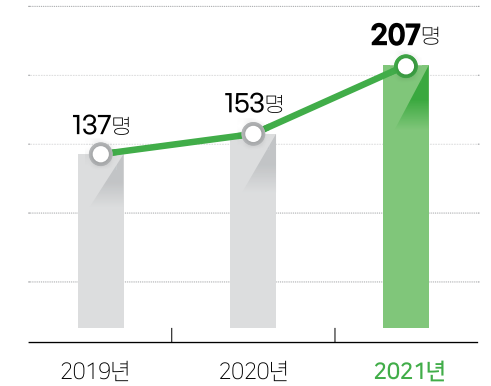
공공부지를 임차하여 세운 햇빛발전소

햇빛발전소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도심에서는 건물의 옥상이나 주차장의 지붕패널 등으로 많이 활용된다.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도 서울시 내 학교 옥상과 학교 주차장, 공공건물 옥상, 공용 주차장 옥상에 298kW규모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 중이다.

“현재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햇빛발전소는 총 4기입니다. 1호기는 화원중학교, 2호기는 대일관광고등학교, 3호기는 서울에너지공사 옥상, 4호기는 영남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수 추이



발전소	규모	공간 확보 방식	위치	월 예상전력량 (kWh)
1호기 화원중학교 햇빛발전소	48kW	임차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17나길 86	4,752
2호기 대일관광고등학교 햇빛발전소	84kW	임차	서울시 양천구 신정아펜1로 11	8,316
3호기 서울에너지공사 옥상	95kW	임차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9,405
4호기 영남주차장 햇빛발전소	71kW	임차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4길 9	7,029

환경 보호는 이웃 주민과 함께

이곳에서 생산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한전발전자회사, 전력거래소에 판매되고 있다. 전력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구조이다. 총 4기의 햇빛발전소는 지역의 공공부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공공부지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학교의 경우 서울교육청이 각 학교로부터 공공부지 임차신청을 받은 뒤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에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럼 연합회에서 협동조합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협의해 배정해줍니다. 하지만 공공부지를 제공하는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공공부지를 구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학교 이외의 서울시 공공부지는 서울시 햇빛발전소부지 공모에 응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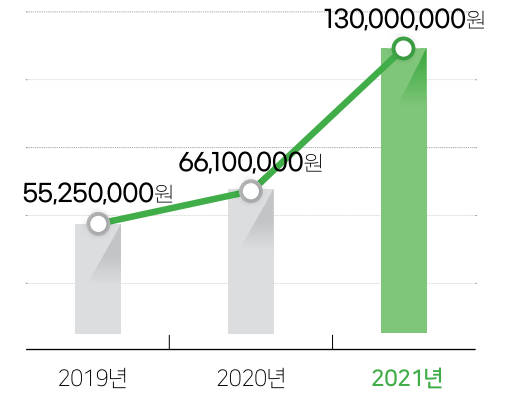
공공부지에 햇빛발전소를 설립·관리와 더불어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다. 바로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플라스틱 프리, 제로웨이스트 생활, 자원순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로웨이스트 숍 '지구살림터'를 운영하는 것.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들도 환경을 위한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지구살림터'에서는 대나무 칫솔, 고체 치약, 천연 수세미, 소창 행주, 유기농 비누 등친환경 생활용품의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십시일반 한 덕분에 2021년 4월 '지구살림터'를 개점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살림터는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가 안 나오는 무포장 가게인데요. 세제나 곡물을 필요한 만큼씩 담아가는 리필 스테이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키움센터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카페에서 내놓은 우유갑을 모아 '지구살림터'에 가져온다. 이렇게 놀러온 아이들을 위해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기후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장처럼 활짝 트인 공간에서 자전거 발전기, 햇빛분수, 태양열 조리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태양열 조리기로 고구마와 달걀을 구워먹는 시간이예요. 즐겁게 놀면서 배우는 아이들이 정말 예뻐 눈을 땔 수 없을 정도랍니다.”

출자금 추이



조합원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협동조합

대부분의 사람은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한 게 없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2021년 현재 '환경보호'가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것도 이상기후가 체감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현주 이사장은 조합원들과 햇빛발전소 청소, 신규 햇빛발전소 나들이 등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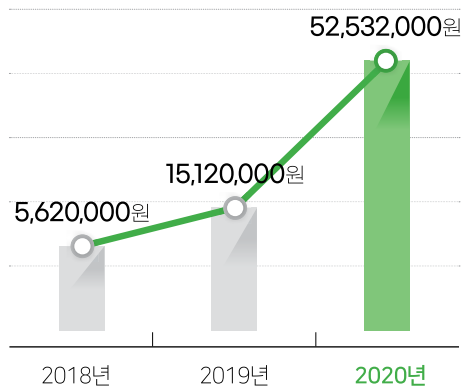
“아무리 조합원이라고 해도 직접 발전소를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자신이 소유자임에도 관심을 갖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발전소 나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조합원들의 가족들도 여러 명 가입하기도 했어요.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저희 조합이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보급하는 것 같아 정말 뿌듯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위해, 조합원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

● 매출 추이



협동조합.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직접 체험이 가능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가고 싶다고 한다.

“2021년 11월 기준 조합원은 207명이며, 40~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는 자녀들도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0~20대 조합원들도 있죠. 조합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누구나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민주적인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 기반이 튼튼한 협동조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無’에서 ‘有’를 창조해 나가다

사실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설립 초기, 전기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걱정도 많이 되었다는 이현주 이사장. 그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햇빛발전 협동조합 네트워크 등에서 만난 선배 협동조합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無’의 상태에서 4기의 발전소, 제로웨이스트 숍까지 전력생산과 자원순환, 판매활동으로 ‘有’를 창조해나가는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그들은 계산하기 힘든 자원의 흐름을 만들어냈으며 햇빛발전소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에 힘썼다. 제로웨이스트 숍 ‘지구살림터’는 아직 인건비만큼의 이익은 발생하지 않아 현재 상근직원을 두지 못하는 상태지만, 차츰 ‘지구살림터’도 자리를 잡으면 직원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햇빛발전소를 짓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냄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뜻 깊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 있는 성과이기도 하죠. 앞으로 지속적인 자원순환활동을 진행하여 기후위기의 현실을 알리고, 저희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영향력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자랑거리는 ‘적극 참여하는 조합원들’이다.

언제, 어느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적극 참여하는 조합원이 저희 협동조합의 첫 번째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들이 관리하는 햇빛분수, 태양열 조리기, 태양광 선풍기, 줄넘기 발전기, 자전거 발전기 모두 우리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Love Letter

To.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여러분, 저는 모든 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우리 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이웃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뜻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2 동근햇빛발전 협동조합

햇빛발전 활성화로 낙원을 만들어 나가고자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 낙원 세계를 실현하려는 이상을 지닌 원불교. 단순히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만을 추구하는 종교단체에서 벗어나 원불교의 정신을 자연에너지에 담아 환경을 지키고자 탄생한 조합이 있다. 바로 '동근햇빛발전협동조합'. 이들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 활동으로 에너지 절약과 자연에너지를 생산하여 자원고갈, 기후변화, 핵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지속가능한 삶과 공정한 분배, 정의로운 사회적 환원을 실천하고 있다.

이사장 송원근
설립일 2013. 07
주요사업 재생에너지 교육, 태양광 발전 등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Tel 02-3280-1230

조합 연혁

- 2013. 07. 동근햇빛발전협동조합 창립
- 2015. 12. 파리기후변화총회 민간부문 100개 햇빛교당 사례발표
- 2016. 05. 원불교 100년, 100개 햇빛교당 설치 완료
- 2018. 01. 해외햇빛에너지나눔활동-네팔 포카라 교당 (6kW 발전소 설치)
- 2019. 09. 제1회 대한민국 솔라리그대회 환경부장관상 수상 (상금 300만 원 몽땅햇빛교당사업 기부)
- 2020. 09. 솔라리그 상금(300만 원)과 조합지원금으로 햇빛발전나눔(간성교당, 인제교당 각 3kW 발전소 설치)
- 2020. 11. 제2회 대한민국 솔라리그대회 민간부문 '기후위 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상' 수상
- 2021. 09. 캄보디아 프놈펜 교당 지원금 기부(570만 원)



원불교의 정신을 기반으로 설립한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

2011년 3월,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쳐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때의 사고로 인해 우리의 땅과 바다, 먹거리까지 위협을 받았다. 이웃나라인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탈원전에 주목했다. 그러던 2013년 7월, 당시 이사장이었던 강해윤 이사장을 주축으로 탈원전과 태양광 발전에 주목했고, 이에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전남 영광에 원불교 제1성지인 영산성지 인근에 한빛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후쿠시마처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닥친다면 결코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탈원전에 관심이 커졌고, 탈원전의 대안으로 태양광 발전이라는 재생에너지를 알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가 먼저 실천하자’는 교단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인 분들과 2013년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강 이사장을 주축으로 환경오염과 대체 에너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조합이 꾸러졌다.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 후 첫 목표는 바로 ‘우리 교당에서 쓰는 전기는 스스로 생산하여 사용하자’였다. 원불교의 목적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의의를 두었기 때문이다.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삶, 공정한 분배, 정의로운 사회적 환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으로 설립했으며, 현재 교당과 공공기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에너지 전환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과소비 중심의 욕망을 버리고 단출한 삶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조합원들과 협동하고 있다.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현재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업이 상업용 햇빛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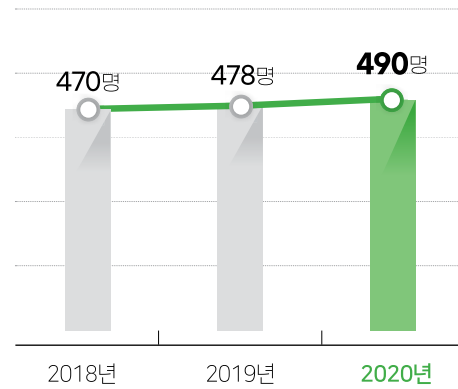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교당과 공공기관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에너지 전환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당, 학교, 공공기관, 사기업의 옥상 등을 임대 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39개의 상업용 발전소(약 1.5MW)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37개의 발전소가 있었는데 여기서 생산된 전력은 총 1,840,754kWh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이다. 송원근 이사장은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발전소가 시민 스스로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발전소를 국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교육과 홍보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2020년에는 ‘함께 준비하는 에너지 전환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그린뉴딜과 태양광 발전소,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후 우리 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올해는 ‘재생에너지 100% 세상 RE100’이라는 주제로 우리집 RE100 플랫폼 협동조합 사례와 RE100 시민클럽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더불어 조합의 소식을 알리는 뉴스레터, 원불교 신문과 한울안신문에 신문광고를 진

● 조합원 수 추이



행하며 협동조합을 홍보하고 있다. 조합원들끼리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조합의 소식을 전한다. 최근에는 4대 종교방송 ‘바이소셜 캠페인’을 위해 홍보영상도 촬영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추진하는 이유는 많은 시민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100개의 햇빛교당,
 우수사례로 인정받다**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불교 100년을 기념하여 100개의 햇빛교당을 설치했다. 100년 성업회의 지원과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자체사업, 햇빛연원 달기 기부 운동, 서울시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100개 햇빛교당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100개 햇빛교당에 대한 안내와 태양광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상담과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햇빛발전소가 설치된 교당의 인식이 좋아야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의 100개 햇빛교당 사업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총회 민간부문에서 100개 햇빛교당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까지 100개 햇빛교당을 만드는 데 성공하여 에너지 전환 운동에 기여함을 인정받았죠. 이후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서울대 이공대신문사 펀드모임에서 주관하는 공동체 에너지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 제1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 제2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 협의회장상을 수상했으며 이때 받은 상금으로 2개 교당에 발전소를 지을 수 있었다. 또 2019년 솔라커넥트 발전왕 선발대회에서 경기지역 발전왕으로 선발되었고, 이 상금은 한겨레중고 새터민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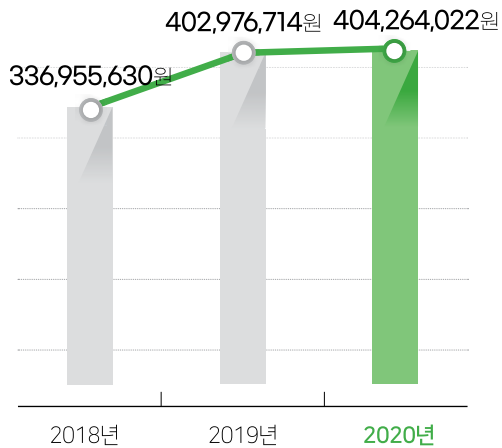
**전 국민,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날까지**

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받은 상금과 조합원들의 지원을 통해 해외 나눔사업을 추진하여 네팔 포카라와 캄보디아 프놈펜 교당에 발전소를 설치하였다.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향후 '원불교 RE100'을 목표로 협동조합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지역을 표본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원불교 전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한다. 또한 시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재생에너지 100% 세상 RE100’이라는 주제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나부터 우리집 RE100플랫폼 협동조합 사례와 RE100시민클럽에 대한 교육, 원불교 RE100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RE100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총 39개의 상업용 발전소와 교당 옥상과 유휴부지에 100개가 넘는 자가 소비용 발전소를 설치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걸음을 떼었다. 이에 따라 조합의 매출액과 조합원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사업도 더욱 확장되어야 할 때이다.

매출 추이



“국내 햇빛발전소 설치부터 교육, 나아가 나눔사업인 해외 발전소 설치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목적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크게 보면 원불교 교리의 실천과도 맞닿아 있기에 이를 실천하기 위해 늘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모델을 구축하여 인식 전환과 지속적인 실천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교당부터 전국, 해외까지 태양광 사업이 보편화되는 그날까지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의 행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Coop-index

협동조합 평가지표 Coop-index 진단 결과,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협동조합 7대 원칙 중 제5원칙과 제6원칙을 우수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원칙 · 교육, 훈련, 정보 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직 대표, 경영자 그리고 직원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주도층에게 협동조합의 본질과 혜택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6원칙 · 협동조합사이의 협동
협동조합은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의 조직들과 협력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한다.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자랑거리는
‘100개 햇빛교당’이다.

2016년에 100개 햇빛교당을 성공적으로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파리기후변화총회 민간부분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하였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100개 교당이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자랑거리 그 자체입니다.

Love Letter

To. 등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햇빛으로 평화세상을 만들어가는 조합원 여러분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는 활동가이며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지구공동체의 으뜸 구성원이자 나눔을 실천하는 보은자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햇빛으로 평화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3 한살림햇빛발전 협동조합

에너지 자립에 소외되는 계층은 없어야 한다

인류가 자연에 대해 수탈적 소비만을 지속한다면, 우리 얼마 가지 않아 북극곰과 수많은 종류의 동·식물을 책과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자연이 인류에게 준 혜택을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기 위해 자연의 '살림'을 택했다. 자연 속에 살아가며 자연을 살려내는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사장 강석찬

설립일 2012. 12

주요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사업, 에너지전환 교육사업 등

주소 경기도 안성시

Tel 02-6715-0837

조합 연혁

- 2012. 08. (가칭)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TFT 구성
- 2012. 12. 한살림햇빛발전 창립총회
- 2015. 03. 제3차 정기대의원 총회/첫배당(4.3%)
- 2017. 07. 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10회 진행) 라오스 산골마을 태양광 설치 지원
- 2019. 05. 밀알복지재단과 사회공헌 제휴협약 (라오스 수해지역, 아프리카 말라위 햇빛랜턴 지원)
- 2020. 12. 11호기 한살림 농업회사법인 햇빛발전소 준공
- 2021. 06. 인도 달리트공동체 태양광발전소(5kW) 기부



국내를 넘어 세계 모든 국가의 에너지 자립을 꿈꾸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 자립이 힘든 상황이다. 국내만 보더라도 소외계층은 에너지 자립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모두가 에너지 자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핵에너지 대체는 물론 일상적인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자본에 기대지 않고도 나의 생활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명살림의 세상을 만들자는 것을 목표로 2012년,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다양한 재

생에너지 중에서 특히 햇빛에너지를 이용한 이유는 생명운동 살림의 철학과 지속가능성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누구나 에너지 사용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하는 ‘에너지 기본권’과 자본 또는 소수에 의한 에너지 독점을 반대하는 ‘에너지 주권’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크게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더불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취약계층 지

햇빛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원사업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사용할 때 특정 지역과 사용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소 건설을 추동하여 지역주민들이 에너지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에는 21년 현재 1,801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사업을 병행하다 보니 에너지 전환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부터 고령의 에너지 생산자까지 조합원의 연령이 다양하다. 또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다 보니 전국 곳곳에 조합원들이 분포되어 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창립 초기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의 발전소를 준공했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8개의 발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11개의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발전소는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등에 위치한 각종 생산시설과 물류센터의 지붕에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 연간 생산되는 전기만 해도 무려 1,453,284kWh이다. 일반 가정집의 전기 사용량이 월평균 300kWh임을 감안하면,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전기는 약 4,800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력생산량은 강석찬 이사장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업 초기



는 에너지 사용이 취약하며, 산골 마을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지원팀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인 라오재생가능에너지지원센터에서 양성한 태양광 기술자들이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마을사원 1곳, 에너지 빈곤가구 28곳에 햇빛발전기와 전등을 설치하여 해외 빈곤 국가에 희망의 빛을 전달했다. 그 결과 이들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자급자족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단순히 햇빛발전기 설치 지원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이 스스로 햇빛발전기를 점검, 관리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자립할 힘을 키워주었다.

태양광에 대한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지역 내에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다.

“사업 초기에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잘못된 정보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정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꾸준한 교육과 홍보활동으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갔죠.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울 때는 교육 동영상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나눔의 가치를 아는 협동조합

연간 140만 kWh의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그들은 이렇게 판매하고 발생한 금액으로 조합운영과 해외 지원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밀알복지재단과 협약하여 라이팅 칠드런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라이팅 칠드런 캠페인은 태양광 랜턴을 만들어 에너지 빈곤국에 전달하는 사업인데요. 이 캠페인을 통해 아프리카 말라위, 동남아시아 라오스 등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 아이들에게 태양광 랜턴을 기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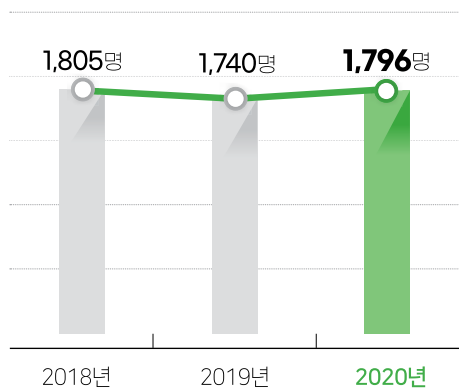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라오스에는 랜턴 기부와 더불어 햇빛발전기와 전등설치를 지원했다. 현재 라오스

에너지 자립 확대를 위한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노력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햇빛발전소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그들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을 다니며 에너지 전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2050 실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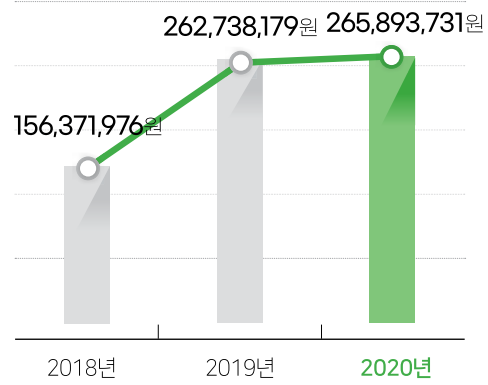
“에너지 전환 교육의 목적은 시민들 스스로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끝난 뒤 많은 분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가 되고 싶다’는 반응을 해 주시거나 ‘재생 에너지로 적극 전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해 주시니 교육을 진행한 저희로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 조합원 수 추이



이러한 노력 끝에 주민들은 점차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의 활동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탄소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리고 현재는 주민들이 오히려 조합에 먼저 사업을 의뢰할 정도로 햇빛발전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다.

매출 추이



협동조합은 교육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흥미를 끌 만한 활동과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햇빛 저금통 만들기 활동과 지구를 위한 4주 소등 캠페인 등 시민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도 진행했다고. 이렇게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교육활동과 캠페인에는 매년 200~4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하고 있다.

대지본 중심의 소수에게 집중된 에너지 생산에서 벗어나 지역의 가치창출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그들이 일구어낸 미래의 에너지가 기대된다.

칭찬은 협동조합을
추추게 한다

강석찬 이사장은 태양광 발전사업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한다. 또 중앙집중식 에너지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분산형 지역 에너지 생산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햇빛발전소 설립, 에너지 복지사업, 에너지 전환 교육 등을 통해 협동조합을 키워나가는 조합원들. 이들은 그간 여러 활동을 하면서 각종 상을 수상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왔다.

“국가에너지전환 우수사례공모대회 최우수상, 대한민국 솔라리그 공모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SK 사회성과 인센티브 가치측정 프로젝트와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프로젝트에 선정되는 등

여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합의 활동과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것뿐인데 상을 받으니까 국가에서 칭찬을 해 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재생에너지 생산에서 소외된 지역과 사용자가 없도록,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소 건설을 추동해 나가는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이들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에너지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자랑거리는 **‘꾸준하게 함께해 준 조합원’**이다.

대다수의 에너지협동조합은 조합원출자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억 원이 넘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비용을 100% 조합원출자금으로 건설하였습니다. 출자 후 발전소가 준공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기다려주신 1,800여 명의 조합원이 우리 조합의 자랑입니다.

Coop-index

협동조합 평가지표 진단결과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협동조합 7대 원칙 중 **제1원칙**과 **제7원칙**을 우수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성·사회·인종·정치·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7원칙 · 커뮤니티 관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승인한 정책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

Love Letter

To.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위해 재생에너지전환을 함께 해주신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과 에너지 발전 사업을 확대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세상에 온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

미국 실리콘밸리의 착한 기업 '루비콘'의 창업자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게 사회적기업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내에 이런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바로 사회적협동조합휴먼케어이다. 농촌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확충하고 저소득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사장	송유정
(주)휴먼케어 설립일	2008. 05
사·협 설립일	2019. 04
주요사업	돌봄서비스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Tel	043-212-9194

조합 연혁

- **2008. 05.**
법인 (주)휴먼케어 설립
- **2008. 07.**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목욕 재가장기요양기관 설립
- **2008. 10.**
장애인 활동보조 제공기관 선정
- **2013. 11.**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주·야간보호센터 개소
- **2019. 04.**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보건복지부)
- **2019. 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권역 수탁선정(청주시)
- **2020. 06.**
지정기부금단체지정(기획재정부)
- **2021. 06.**
내덕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
- **2021. 12.**
365 장애인 열린 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



마음을 나누는 돌봄 실현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까지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을 걸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회적협동조합휴먼케어’이다. 휴먼케어는 2008년 농촌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2008년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었죠. 특히 청원군은 농촌지역이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어요. 복지 인프라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8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식회사로 휴먼케어를 운영하던 송유정 이사장. 하지만 우리 가족을 돌보는 일도 힘든데, 가족이 아닌 남을 돌보는 직원들이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이에 2019년 4월,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게 저희 조합의 미션입니다. 좋은 일자리에서 일해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면서 휴먼케어는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서비스에 전문성을 더하다

송유정 이사장이 언급한 휴먼케어의 변화, 바로 ‘돌봄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게 된 것이다. 돌봄 사회서비스란 쉽게 말해 돌봄 취약계층의 안정된 일상생활을 위한 정책이다. 노인과 장애인은 물론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복지옹구·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 형태의 시설 서비스 제공부터 노인 주·야간 보호 서비스까지 생애주기별 종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지원을 기반으로 휴먼케어는 지역 내 통합 돌봄 서비스 거점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어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1인 가구를 위한 테이블, 먹거리 등의 제

품을 출시할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요소들이 생겨났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고독사’.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문제도 점차 늘어났다. 또 요즘같이 감염병이 발생하면 사회복지사의 부재가 길어지게 되고, 관리는 더욱 어려워진다. 그렇기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종사자들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휴먼케어는 지역사회 의료 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지역의 병원과 협업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를 확장 중입니다. 병원과 협력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해 주민들의 교육을 진행하고, 가정 간호 등에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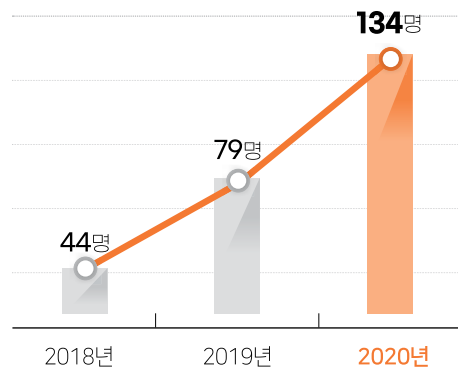
누군가에겐 한 줄기의 희망이 되는 휴먼케어의 돌봄 서비스

2009년부터 탄탄한 기반을 쌓아온 휴먼케어. 하지만 이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왔다. 종사자들이 근무하기 불편했던 것은 물론이고 서비스 이용자들이 사무실에 방문하는 것조차 어려운 장소였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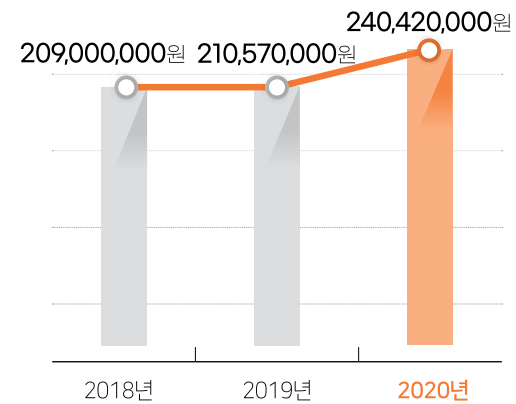
“이전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공간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하루는 이용자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 사무실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휠체어를 직접 들어서 사무실까지 올려드렸던 기억이 나요.”

현재 휴먼케어는 종사자들 모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도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 프로젝

조합원 수 추이



출자금 추이



트를 추진하고 있다. 재작년 사회성과 인센티브에 매월 정기 출자자들이 개미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매월 600만 원 정도가 모이는데, 그 돈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있는 중이다. 송 이사장은 큰돈이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며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휴먼케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가슴이 절절한 에피소드들도 있다.

“현재는 고인이 되셨지만 아직까지 잊히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였고 오랜 시간 투병생활을 하셨어요. 우리 가사 간병 서비스가 이분 삶의 희망이셨던 거죠. 그분께선 시각지각인을 전공하셨는데 투병 중에도 작품 활동을 해오셨어요. 그분이 고군분투 해 만든 작품들을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맞아 개최한 재창립 기념행사에서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면역력이 약해 본인 전시회를 관람하지 못했다. 그래서 송 이사장은 아쉬운 마음을 위로하고자 전시회 당시의 사진을 찍어 전달했다. 본인의 전시회를 사진으로나마 관람한 그분은 끝없이 눈물을 흘렸다. 송유정 이사장과 함께 있던 종사자들은 평생의 소원을 풀어드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렇듯 돌봄은 많은 사람에게 한 줄기 희망이다.

나눔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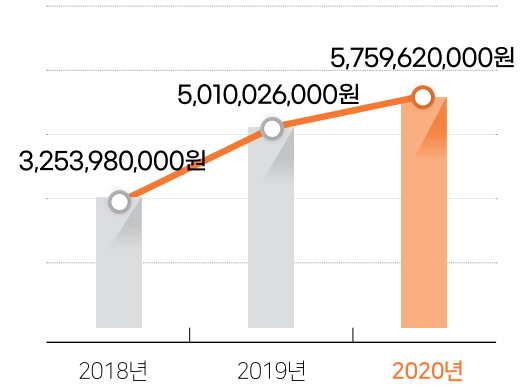
휴먼케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돌봄의 온기를 지역 곳곳에 퍼뜨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최근에는 청주시 율량사천동에 공유 냉장고 설치를 제안했다.

“공유 냉장고는 지역주민 분들의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인데요. 흠살림이라는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과의 협업 덕분에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경제조직과 연대·협력하여 통합 돌봄 시대에서 휴먼케어가 전초기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과 함께하고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휴먼케어는 지역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탈수급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면서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1년 기준 전체 고용인원 276명 중에서 고령자가 172명, 장애인 근로자가 10명, 저소득·탈수급자가 9명입니다. 이분들이 계시기에 휴먼케어가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십니다.”

● 매출 추이



송 이사장은 휴먼케어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3년 이상 근속자에겐 분기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직업의 특성상 근무 중 몸을 많이 쓰는 직원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데, 송유정 이사장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예방적 의료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한 돌봄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는 중이다.

의료기관, 지역사회와 협업하며 2020년을 보낸 휴먼케어는 약 57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한 내일키움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50여 개 이상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



다. 이에 2020년 SK 사회성과 인센티브 성과 평가에서 인정을 받아 인센티브를 지원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나가고자 돌봄 서비스 사업에 추가로 투자하였다. 송유정 이사장은 돌봄 서비스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방문요양·방문목욕·노인주간보호를 담당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최우수선정기관으로서 언제나 품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조합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돌봄’을 향한 송 이사장의 마음은 각박해져 가는 사회를 데우는 추운 겨울날의 난로 같다는 생각이 든다.

Coop-index

협동조합 평가지표 진단결과 사회적협동조합휴먼케어는 협동조합 7대 원칙 중 **제6원칙**과 **제7원칙**을 우수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원칙 · 협동조합사이의 협동

협동조합은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의 조직들과 협력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한다.

7원칙 · 커뮤니티 관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승인한 정책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



사회적협동조합휴먼케어의 자랑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다.

—
설립 초기부터 약 14년간 휴먼케어와 함께 해주신 모든 종사자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이 휴먼케어의 자랑입니다.

Love Letter

To. 사회적협동조합휴먼케어 조합원들에게

돌봄이란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걸어주는 것, 함께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분들은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2 서울디지털인쇄 협동조합

함께하기에 디지털 인쇄업은 성장해나갈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당연 투자비용이다. 여러 업종 중에서도 제조설비를 구축해야 하는 업종은 더욱 그렇다. 특히 인쇄제조업의 경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다. 무사히 인쇄업계에 진출하더라도 현재 시장이 과잉경쟁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부진과 소득저하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인쇄분야의 제조설비 투자 부담과 과당경쟁에서 벗어나 상생하기 위해 설립한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사장 박성진
설립일 2015.02
주요사업 인쇄제조업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Tel 02-6673-2992

조합 연혁

- 2015. 02.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 설립
- 2016. 07. 2016 협동조합 우수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 2016. 11. 중소기업청장상 수상(우수 협동조합)
- 2018. 0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선도형 선정
- 2019. 02. 2019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와대 간담회 초청
- 2019. 04. 역삼지점 오픈(에스디지털프린트인쇄협동조합)
- 2019. 12. 서울특별시 우수사회적경제 기업 선정
- 2020. 02. 세종지점 오픈(세종디지털인쇄협동조합)
- 2020. 04. 벤처기업 인증



**인쇄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해결**

요즘 1인 출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면서 소량 인쇄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들과 1인 출판한 도서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바로 인쇄 방식이 다르다는 것.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들은 대량 인쇄로 오프셋 인쇄 방식으로 탄생하며, 1인 출판 도서 같은 소량의 인쇄물은 디지털 인쇄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프셋 인쇄는 판화처럼 컬러별로 동판을 제작하여 한 종이에 찍어내는 방식이라 가격이 비싸고 오랜 시간이 걸려 대량 인쇄에 적합하다. 반면 디지털 인쇄는 일반 프린터기처럼 한 번에 출력하므로 빠르고 저렴한 소량 인쇄에 적합하다. 요즘엔 대량 인쇄가 사그라드는 추세이며, 고객들은 오프셋 인쇄보다

디지털 인쇄가 가능한 인쇄소를 찾는다. 이에 몇몇 인쇄소는 디지털 인쇄로 전환을 시도하기도 한다.

“고객들이 찾는 디지털 인쇄를 하려면 우선 인쇄기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쇄기 구매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인쇄기를 교체하더라도 이미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편이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도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업 부진은 실질소득 저하, 서비스 품질 하락으로 이어졌죠.”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의 박성진 이사장은 한 인쇄업체의 하청업체에서 일했었다. 이때 하청업체에 대한

처우와 이익분배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인쇄업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모든 업체와 상생하기 위해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협업하는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협업하여 위기를 벗어나고자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함께 공동의 경영과제를 해결해나간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 시작이 디지털 인쇄기 공동 구매였습니다. 오프셋 인쇄 물량이 디지털 인쇄로 대체되어 감에 따라 현재 시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디지털 인쇄기 구매 부담을 공동 투자로 해결한 것이죠. 이렇게 개개인의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초기

투자대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경영 철학도 ‘일한 만큼 일한 당사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다 같이 잘 살자’이다. 협동조합을 설립한 취지와 박성진 이사장의 목표의식이 뚜렷이 나타나는 경영 철학이다.

“일한 당사자에게 일한 만큼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다 같이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알고 지냈던 출력회사와 디자인회사, 영업 전담회사 업체들과 협력하여 협동조합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함께’라면 부담은 Down,
효율은 Up!**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은 인쇄업계의 상생을 위해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세 가지 경영방식의 이점은 무엇이며 조합원들은 조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2015년 설립 당시 인쇄업에서 꼭 필요한 출력회사와 디자인회사, 영업 전담회사 업체들과 협력하여 협동조합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각 사업자가 공동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했죠. 그

래서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인쇄에 필요한 원자재를 조합에서 다량으로 공동구매하여 원자재 가격을 낮추었다. 만약 소상공인들이 백색 종이를 100장에 3,800원에 구매해왔다면, 공동으로 구매했을 때는 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원가절감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일인 셈이다.

또 인쇄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된 지점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인 공동생산 시스템을 갖추었다. 대량생산은 본사로, 소량생산은 각 지점으로 분배하는 방식인 것. 이는 똑같은 장비를 구매할 때 드는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주었다.

“공동판매의 경우 인쇄물을 동일한 브랜드로 제작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것입니다. 공동판매를 하게 되면 공동마케팅도 가능한데요, 각자의 상호를 홍보하는 것이 아닌 일 브랜드의 홍보에 집중하여 홍보비용을 줄이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게 된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은 이 덕분에 대형기업과 해외 프랜차이즈 기업과도 경쟁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박성진 이사장과 조합원들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전국 곳곳에 있는 인쇄업계 업체들과 함께 협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동종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며 인쇄업 시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협동조합 연합회 프랜차이즈를 준비하고 있다.

**하청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이 없는
인쇄업계를 만들고자**

앞서 언급했듯 인쇄업계 소상공인은 장비에 계속해서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크다 보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연합회 프랜차이즈

를 통해 인쇄물을 공동생산하고 장비를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카피카피 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기존 대형기업의 프랜차이즈와 서울디지털인쇄 협동조합 프랜차이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박 이사장은 ‘가맹점과의 불공정한 계약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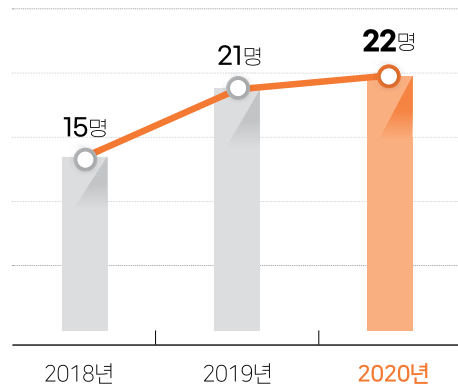
“모든 대형 프랜차이즈가 그런 건 아니지만 프랜차이즈 본부의 이익을 위해 가맹점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어려움을 겪죠. 이에 반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는 기존 가맹점과 신규 가맹점이 서로 공동운명체로 엮여 협동하는 관계를 구축합니다. 즉 성공을 보증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고 함께 책임지는 협력 시스템이란 점에서 기존의 프랜차이즈와 다릅니다.”

현재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협동조합 연합회 프랜차이즈는 총 3개이며 2022년에 추가로 1개의 프랜차이즈를 오픈할 예정이다. 2019년 역삼지점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세종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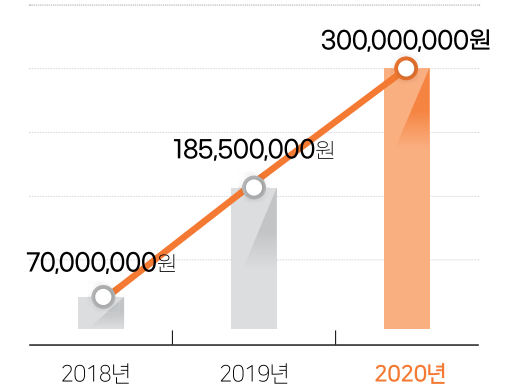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에는 청년숲협동조합 동대문점, 위키코리아 강서점을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역삼지점은 강남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동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립했습니다. 또 앞으로 오픈하게 될 청년숲협동조합 동대문점은 동대문 지역의 경계성 장애인이 소속된 단체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위키코리아 강서점은 청년 미혼모 단체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 조합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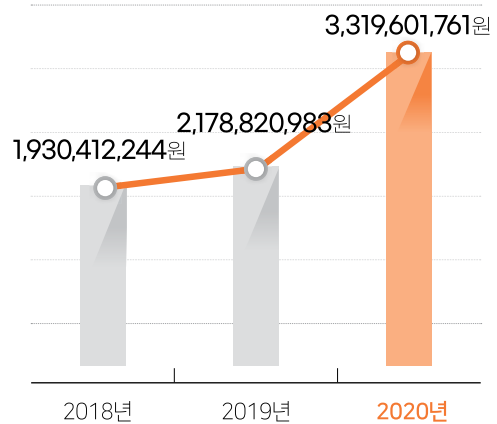


● 출자금 추이





● 매출 추이



박 이사장과 조합원들은 힘을 모아 전국 단위의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으로 진화해서 큰 규모의 협동조합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인쇄업계 종사자 모두가
잘사는 그날까지**

지역 곳곳에 총 4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과 공생하며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이다.

“사실 인쇄제조업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하기 어렵죠. 하지만 인쇄업 특성상 전문스킬과 장비만 준비되어 있다면 취업취약계층의 사회적 약자도 충분히 배워 창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총 4개 지점에 합류하게 된 분들이 일할 의지만 있다면 저희 조합의 노하우까지 없어져 효과적인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사회적 약자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거예요.”

취약계층자녀, 미혼모, 청년장애인, 경계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경제적 독립을 원하지만 교육의 기회와 창업할 기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프랜차이즈 교육 등을 제공하며 협동조합 연합회 프랜차이즈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디지털 인쇄업은 낙후되고 힘든 업계라

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으로 경영방식을 전환한다면 인쇄업은 누구나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업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 그간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이 노력해온 결과는 매출상승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2015년 협동조합 설립 이후 매년 매출이 20%씩 상승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조합원들의 헌신으로 매출이 전년대비 15%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부터 지금까지 약 6년간 바뀌지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모두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일한 만큼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선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분이 우리 조합에 주인의식을 가져주시면 조합은 끝없는 성장기를 맞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 성어가 있다. 바로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 나감’이라는 뜻의 ‘공존동생(共存同生)’이다. 인쇄업계 종사자들 모두가 ‘잘’사는 그날까지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은 동행할 것이다.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의
자랑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다.

혼자라면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모든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합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조합원이 하나의 뜻으로 모여 협동하고 있으므로 끝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기에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Love Letter

To. 서울디지털인쇄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인쇄업계의 과잉경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관망이 지나 싶더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이 되었네요. 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고 협동하면 디지털인쇄업 분야를 넘어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 있으니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3 협동조합판

‘재밌는’ 축제를 ‘함께’ 만들며 ‘성장’하는 조합

축제는 지루했던 일상 속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축제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지역축제는 역사와 전통을 담아 기획한다. 이렇듯 재미와 감동을 모두 갖춘 지역 축제를 기획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바로 ‘축제’라는 장르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협동조합판이다. 그들의 신명나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사장 오석조

설립일 2016.05

주요사업 축제 및 행사, 공연 기획,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기획

주소 강원도 춘천시

Tel 070-8672-0155

조합 연혁

- 2016. 05.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판 창립
- 2017. 01. 강릉신날레 & 평창비엔날레 총괄 운영
- 2017. 02. G-1년 페스티벌 운영
- 2017. 05. 전국 우수협동조합 '우수사례' 선정
- 2018. 01-03.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사회적경제 상품관 총괄 운영
- 2018. 11. 사회적기업 인증(일자리 제공형)
- 2019. 04. 청년창업우수기업 인증
- 2019. 10. 2019 무한청춘페스티벌 '악사랜드' 총괄기획 및 운영
- 2020. 01. 소셜벤처기업 선정



많은 이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보고자

매일 출퇴근을 하고 등하교를 하며 사람들은 쳇바퀴 같은 일상을 보낸다. 그러다 '요즘 일상이 너무 지루하네. 뭔가 재미있는 볼거리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럴 때 지역에서 개최한 축제에 한번 참여해 보면 지루했던 일상이 특별한 날로 기억된다. 그리고 이 특별한 하루는 협동조합판의 손을 거쳐 탄생한다.

“많은 분들이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같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

분들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판을 설립했습니다.”

오석조 이사장은 협동조합판을 설립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희망하지만 막상 일할 자리와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축제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들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협동조합판은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였다.

“많은 분이 문화기획사를 왜 협동조합으로 설립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전 '문화예술 분야는 트렌드에 민감해야 하고, 수평적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야 대중이 좋아하는 축제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협동조합으로 설립했다'고 답합니다. 문화기획사에서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엔 협동조합이 가장 잘 어울렸거든요.”

톡톡 튀는 개성을 지닌 조합원들은 문화예술 기획사로서 시민들이 하루를 더 특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협동조합판을 접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행사를 만들자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축제와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근로자로서 고용되더라도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오석조 이사장은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할 길 원하는 사람들이 안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조합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도 60%를 유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문화예술 계통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조합원들에게 소개해주곤 합니다. 올해는 벌써 15명이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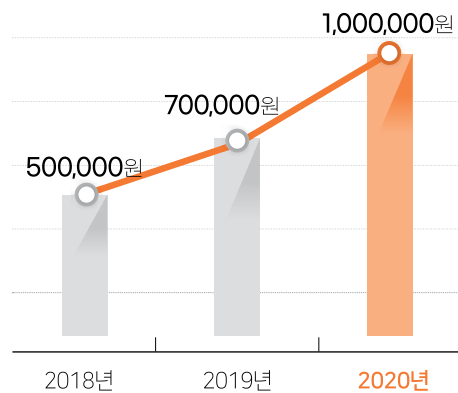




협동조합판 내 일자리 제공과 다른 단체 취업 연결까지. 하지만 오석조 이사장이 추진하는 사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전문 문화예술 인력 무료교육과 파견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다.

“제가 적성 발굴, 성장, 경험, 지원에 관심이 많아 서인지 조합의 사업도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게 되더라고요. 문화예술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3단계로 나눠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 출자금 추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성장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과 관련된 스터디비용과 활동비를 지원한다. 이후 두 번째로는 ‘판클럽’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판클럽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예술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 즉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다. 두 번째 프로그램까지 마친 뒤 문화예술분야 종사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세 번째 단계인 취·창업 프로그램을 연결해준다.

협동조합판의 축제, 뭔가 다르다!

협동조합의 문을 연 2016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축제를 진행한 판. 기획부터 축제 진행, 마무리 작업까지 그들의 손과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공리에 마친 축제들은 오 이사장의 기억에서 결코 잊혀질 수 없다.

“처음으로 기획부터 진행까지 맡아서 한 무한청춘 페스티벌 ‘주지육림’과 환경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었던 환경 페스티벌 ‘지구사이’가 기억에 남아요. 판 조합원들 나이대의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퇴사를 키워드로 한 ‘퇴사중용 페스티벌’도 떠오르네요. 사실 모든 축제에 열과 성을 쏟아서 그런지 다 소중한 기억에 남아서 딱 하나만 꼽기가 힘드네요.”

다양한 주제로 축제를 진행하던 판은 사회 분위기가 ‘환경보호’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캐치했다. 이에 ‘환경보호’와 축제를 결합하여 특별한 기획을 하게 되었다.

“축제란 무언가를 기념하고 축하하며, 즐기기 위해 하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축제를 한 번 개최하고 나면 축제 참가자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플라스틱 컵, 축제 리플릿과 현수막 등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더라고요. 사람이 즐거워지려고 개최한 축제로 인해 지구는 병들어가는 거죠. 저희 판은 지구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의 목재 상품을 활용한 축제를 기획하였습니다.”

바로 2019년 개최한 축제, 쓰레기 배출이 없는 환경 페스티벌 ‘지구사이’가 대표적이다. 지구사이에는 강원도시농업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한 지렁이 알 찾기, 양말 티코스터 만들기, 환경 관련 퀴즈 풀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또 환경을 생각한 자원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판매하여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지구사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2020년에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R&D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때 사용한 부스와 배너, 파티션, 무대 등은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제작됐다. 협동조합판은 그렇게 필(必)환경적인 축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오석조 이사장은 친환경 제품을 적극 활용하여 축제를 진행하는 게 협동조합 판의 특징이자 차별점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함께한다면 그 어떤 위기라도 해쳐나갈 수 있을 것

최근 코로나19로 문화예술 분야가 많이 위축되었다는 소식이 이슈였다. 문화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협동조합 판도 그 위기와 맞닿았을 터. 하지만 '헤쳐나가 보자'는 조합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축제나 행사가 많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과 주간회의를



열고, 한 달에 한 번씩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주로 경영 측면의 고민거리와 축제를 개최했을 때의 리스크를 함께 논의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축제에 소모하는 재정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과 저렴한 재미있는 콘텐츠로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모여 고민한 결과, 2021년 현재 약 7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3명의 인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 성과까지 이뤄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석조 이사장은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면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문화를 위한, 문화에 의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판. 걸어 나가고자 하는 길이 명확한 그들이 만큼 추구하는 바도 확실하다.

"첫 번째는 조합원들이 생각해도 '재미있는' 축제와 행사들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것이 다른 사람들, 나아가 지역사회를 재밌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려고 합니다. 지역사회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을 축제라는 형태로 메시지를 던져 궁극적인 문제해결에 힘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성장'하려 합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문화예술인으로, 독립된 기획자로, 내 삶의 주체로 축제를 통해 성장해 나갈 것 입니다."

축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과 맞닿아 있어 영향을 미친다. 협동조합판이 기획한 축제가 춘천을 넘어 전국에서 개최되어 많은 이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미래가 기대된다.



협동조합판의 자랑거리는 '활력 넘치는 청년들'이다.

판의 조합원들은 그 누구보다 트렌드를 읽어내는 속도가 빠릅니다. 또 트렌드를 선도할 줄 아는 이들이죠. 조합원들과 함께 재미있는 축제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행사와 축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Coop-index

협동조합 평가지표 진단결과 협동조합 판은 협동조합 7대 원칙 중 제1원칙과 제2원칙을 우수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성·사회·인종·정치·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2원칙 ·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통제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직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단위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고, 다른 연합 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된다.

Love Letter

To. 협동조합판 조합원들에게

재치와 센스, 탄탄한 기획력까지 갖춘 여러분이 협동조합판과 함께해 주어서 항상 든든합니다.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을 강타할 Top 문화기획사를 만들어 갑시다. 앞으로도 꼭! 잘 부탁드립니다.

상상청
Project Path

1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모두가 행복한 소통을 꿈꾸다

소통은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행위가 바탕이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은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소통에 불편함을 겪는다. 이에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은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줄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장애의 벽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에이유디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사장 박원진

설립일 2014. 06

주요사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Tel 02-2038-3653

조합 연혁

- **2014. 02.**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총회
- **2014. 06.**
보건복지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 **2015. 07.**
쉐어타이핑 2.0 리뉴얼 오픈, 서울시 공유기업 지정
- **2016. 12.**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017. 12.**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 **2018. 03.**
서울시 초·중·고 문자통역지원사업 시행
- **2019. 04.**
서울 청년 문자통역서비스 시범 시행
- **2019. 05.**
사회적기업 인증
- **2021. 01.**
쉐어타이핑 3.0 리뉴얼 오픈
- **2021. 05.**
사회적 경제 우수기업 재인증(4차)



청각장애인의 소통이 단절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설립한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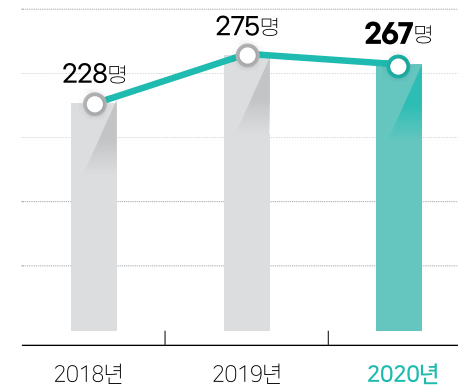
우리나라에는 약 39만 명의 청각장애인이 있다. 이들은 세상과 또는 사람들과 소통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 이에 박원진 이사장은 청각장애인들이 소통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에이유디를 설립한 이유는 바로 ‘모두가 행복한 소통’을 위해서였습니다. 의사소통이 장벽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에이유디 설립 당시 정부에서는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책 중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은 예산, 법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조합원이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동조합 형태로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2014년 설립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에이유디에는 278명의 소비자, 생산자, 후원자, 직원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중 국가공인 한글속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문자통역사는 생산자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수 추이



문자통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비자 조합원은 문자통역서비스가 필요한 청각장애인과 그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청각장애인이 취업했을 경우 근로지원인을 파견하곤 한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취업도 어렵고, 취업 이후에도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고객 또는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회사생활에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존재하죠. 승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내 청각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수어통역사, 문자통역사 등의 근로지원인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쉐어타이핑’ 플랫폼만 있다면 문자통역서비스 가능

TV나 유튜브 영상, 콘퍼런스 등에서는 종종 수어통역서비스가 제공된다. 반면 문자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었을 만큼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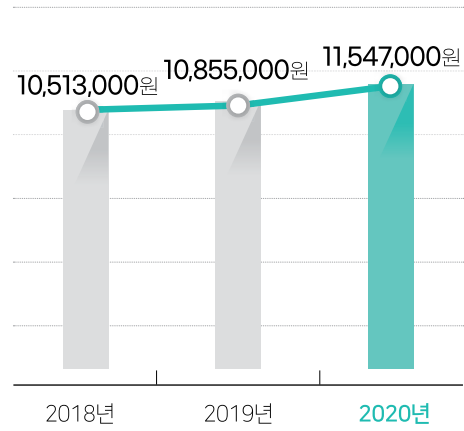
박 이사장은 문자통역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문자통역서비스 플랫폼인 ‘쉐어타이핑’을 구축했다.

“‘쉐어타이핑’은 강연자의 말소리를 글자로 바꿔 스마트 기기를 통해 보여주는 IT 기반의 실시간 문자통역 지원 플랫폼입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빔 스크린 등 다양한 기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글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유디 소속의 한글속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문자통역사가 현장에 파견되어 실시간으로 들리는 소리 정보를 타이핑하면 스마트기기로 자막이 송출된다. 이는 행사나 콘퍼런스 현장에서 청각장애인이 문자통역사 옆에 앉지 않아도 스마트 기기만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서 문자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 출자금 추이



에이유디의 '문자통역 웨어타이핑'은 행사나 콘퍼런스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8년에는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SK C&C와 함께 CSR 사업(사회공헌사업)을 진행했다. 본 사업을 통해 문자통역 지원이 필요했던 초·중·고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문자통역을 제공하였다.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 선례로 작용되어 현재 인천, 경기, 대구, 대전, 강원 지역의 학생들도 문자통역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에는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설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와 함께 서울 청년문자통역서비스를 시범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후 서울문자통역서비스로 명칭을 바꾸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청각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죠.”

장애인의 차별 없는
직장 문화를 만들고자

서로 주고받아야 할 이야기가 많은 회사생활.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마음껏 의사표현을 하기 힘들어 회사 사람들과 마음의 벽을 쌓게 되기도 한다. 최근 장애인 고용 비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직장 내에서의 차별대우는 여전하다.

이에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서 인식개선 교육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문자통역 웨어타이핑” 사업을 운영하던 중 청각장애인이 고용 격차와 사회 불평등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개선에 힘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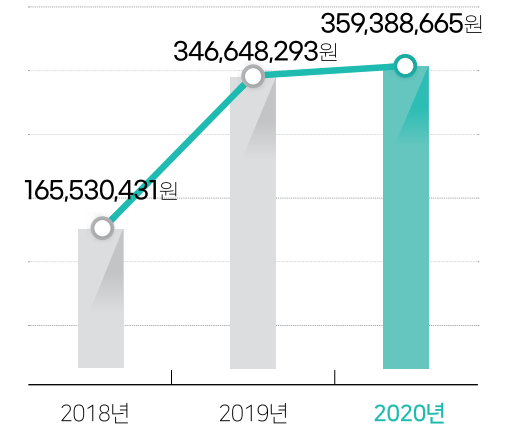
에이유디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내용을 총 4가지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이와 더불어 청각장애인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가 필요할 때 듣는 교육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교육 의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의 이런 교육이 교사나 교직원, 교육계 관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커리큘럼

-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관련 법·제도
- 4 그 밖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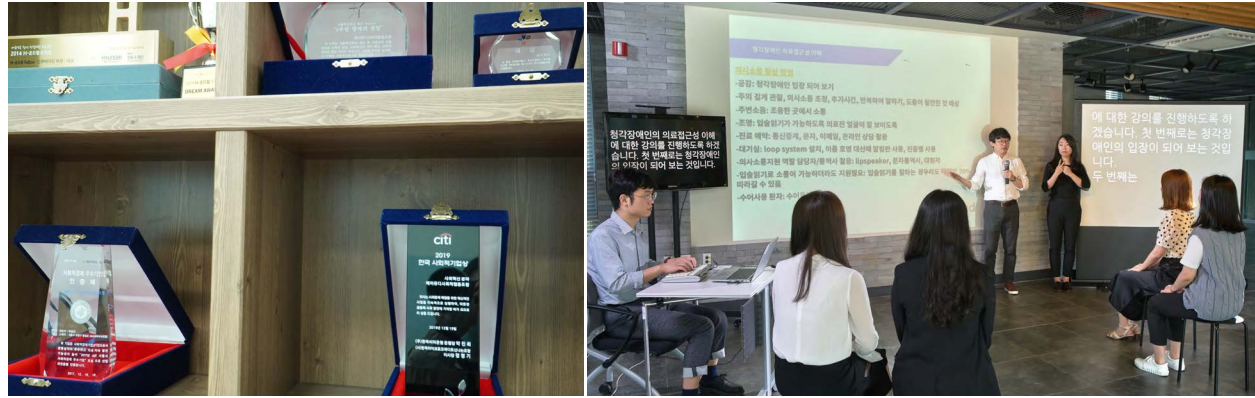


언제 어느 곳에서든
문자통역이 가능하도록

에이유디가 문자통역서비스를 제공하던 초창기에는 문자통역서비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문자통역서비스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박원진 이사장은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청각장애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개발에 힘쓰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 매칭 플랫폼이 개발되면, 긴 상담대기 시간이 줄어들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매칭이 이루어져 기존보다 빠르고 많은 분께 문자통역이 가능해집니다.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매칭 플랫폼을 각 기관 대상으로 확대하여 문자통역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분야 장벽을 낮추다

학회와 포럼 등에만 참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어떤 날은 영화나 연극 등을 관람하고 또 다른 날에는 축제에 참여하며 삶을 즐긴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게 쉽지 않다. 이에 박 대표는 청각장애인도 온전히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들의 즐거운 삶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행사장에서 문자통역서비스를 확대하고 싶다고 한다.

“지금까지 부산국제영화제, 페스티벌 나다,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연극 <소매각시>, 연극 <집집>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자통역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문화예술분야 문자통역을 지원하는 만큼 자막의 위치, 등장인물의 감정표현 등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만의 노하우를 쌓아 청각장애인들의 문화예술 분야 접근성도 높이고자 합니다.”

불통의 사회가 아닌 소통의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청각장애인의 소통을 위해 달려온 에이유디. 그들이 끝없이 달려왔다는 근거는 매출 상승이 증명한다. 2014년 설립 후 첫 매출액은 360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 현재는 3.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매출과 더불어 국가 보조금과 후원금액을 다 합치면 1년에 약 1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에이유디는 이렇게 모인 돈으로 플랫폼을 확충 및 업그레이드하고, 각종 교육과 문자통역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행사인 ‘소통이 흐르는 밤(이하 소밤)’을 추진하고 있다. 이 행사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도 나누고, 서로 친구가 되곤 한다. 그리고 종종 관심사나 종사하는 업무가 비슷하여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2015년부터 시작한 ‘소밤’ 행사는 자기 분야를 개척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혁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비영리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이 행사는 에이유디가 매년 주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7번의 소밤을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서로 소통하며 협동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년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서로를 알게 될까 기대가 되곤 하죠.”

모두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조합, 사회적 가치를 함께 나누는 조합, 공동체를 위해 서로 협동하는 조합, 이 모든 말은 에이유디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통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미래, 에이유디가 앞장서고 있다.

Coop-index

협동조합 평가지표 진단결과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7대 원칙 중 **제1원칙**과 **제6원칙**을 우수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성·사회·인종·정치·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6원칙 · 협동조합사이의 협동

협동조합은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의 조직들과 협력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한다.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은 ‘연결’이다.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문자통역서비스 및 교육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서로가 연결된 사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Love Letter

To.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분들이 서로 ‘힘내’라는 말만 하지 않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는 모습에 너무나도 감동받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사회는 청각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마스크를 착용해서 입모양과 얼굴 표정을 확인할 수 없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며 힘드시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잘 이겨내 모두가 행복한 소통을 위해 애써봅시다.

2 위즈온협동조합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도가 사회의 분위기를 바꾼다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 식당과 카페 앞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하지만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은 그렇지 않다. 버스와 계단을 마주했을 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며, 타인의 도움 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위즈온 협동조합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나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이 편리하고 즐거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IT 세상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이사장 안정식
설립일 2013.05
주요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Tel 042-825-5078

조합 연혁

- 2013. 05. 위즈온협동조합 설립
- 2014. 06. 사회적기업 인증
- 2015. 11. 정보접근성 공유 컨퍼런스 개최
- 2016. 09. 장애인 인식개선 웹툰 '그녀들의 일상' 출간
- 2017. 12. 대전광역시 인권작품 및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 2018. 10. 국민해결 소셜리빙랩 '누구나 평등하게 접근 가능한 거리 조성'
- 2019. 10. 행정안전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모두를 위한 여행' 선정
- 2020. 04. R&D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회문제해결 ICT 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조합원들이 보유한 ICT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사람이 ‘창업’을 꿈꾸곤 한다. 하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장애인이라고 해서 창업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라는 생각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청년들이 의기투합하여 위즈온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ICT 업계 경력직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들이 모여 ‘우리가 가진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를 돕자’라는 취지로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원들이 함께 조직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였고, 논의 끝에 누군가 독점하는 구조보다 1인 1표 원칙을 지키는 협동조합으로 설립하게 되었죠.”

안정식 이사장은 협동조합은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이므로 조합원의 업무 몰입도나 자발성, 책임감이 높고, 그 부분이 협동조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았다. 그렇기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학습을 지속하며 조합을 이끌고 있다.

“장애인 조합원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애인의 문제를 ICT로 풀어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회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활동하는 단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마케팅공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사회문제 개선에 필요한 ICT 개발 컨설팅과 시스템 개발, 서비스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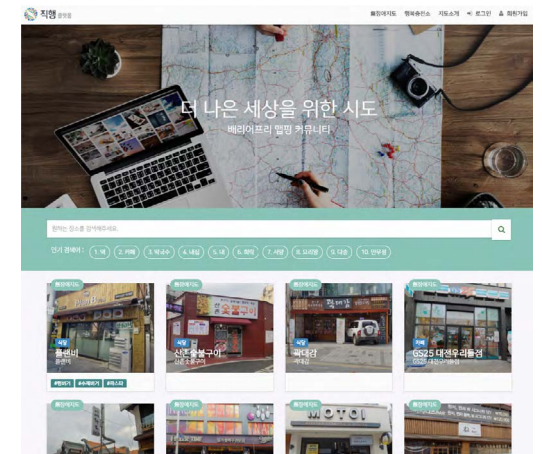
[위즈온협동조합 주요사업 및 지원처]

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처
2018.08~12	국민해결 소셜리빙랩 '누구나 평등하게 접근 가능한 거리조성'	입간판식 경사로 개발 및 설치, 휠체어 편의시설 조사	희망제작소
2019.02	D-tech 기술, 디자인 공모전 대상	입간판식 경사로 고도화	법무법인 디라이트
2019.10~12	대전지역 문제해결 플랫폼 '모두를 위한 여행'	휠체어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조사 및 영상 콘텐츠 제작	대전광역시
2020.04~11	사회문제해결 ICT 서비스 기술개발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대전 저상버스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저상버스 예약 및 사전결제 시스템 개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0.08~11	마을리빙랩 지원사업 '모두를 위한 여행'	휠체어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조사 및 여행 영상 콘텐츠 제작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2021.01~02	CNU 배리어프리 사업	입간판식 경사로 및 점자 메뉴판 보급	충남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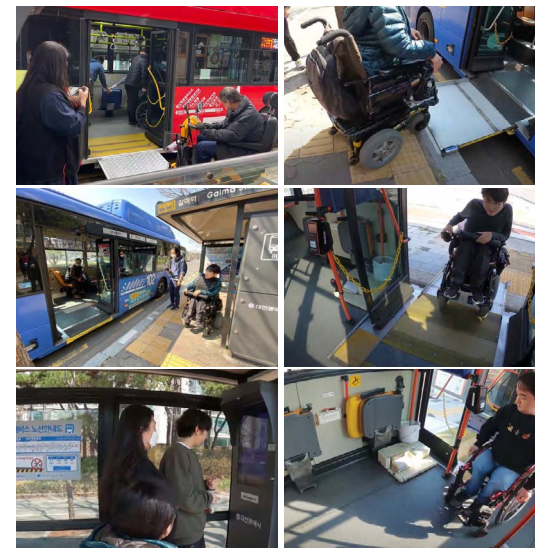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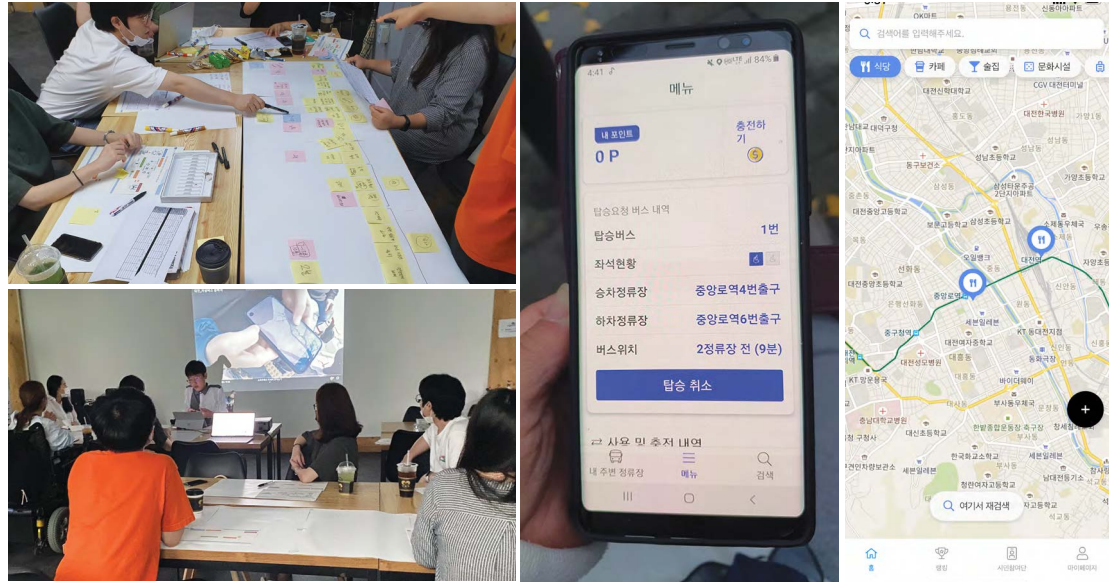
**ICT 기술로 만들어가는
편리하고 즐거운 삶**

비장애인들은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자신이 필요한 물품만 챙겨 가면 된다. 하지만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들은 가고 싶은 여행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여행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어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위즈온협동조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정보제공 온라인 사이트인 '직행'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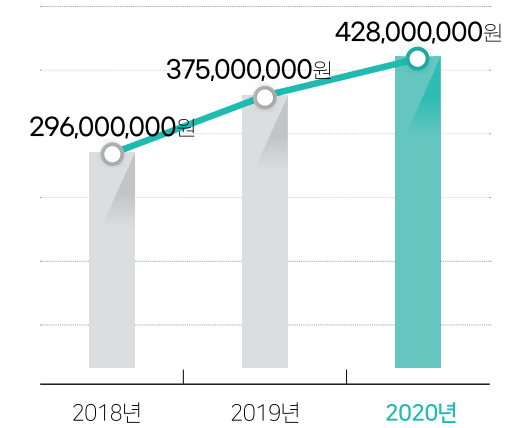
“휠체어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제공 온라인 사이트인 '직행'은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식당, 카페, 문화시설, 화장실 등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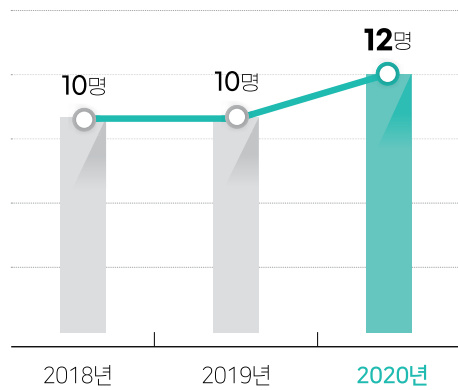
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와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정보를 수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1,670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사용해 보고 공유한 정보입니다. 많



매출 추이



조합원 수 추이



은 장애인분들이 저희 사이트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사이트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위즈온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또 다른 형태의 ICT 기반의 사회서비스가 있다. 바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어플을 개발한 것이다. 사실 교통약자의 경우 대중 교통 탑승이 매우 어려운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특히 휠체어 장애인들이 저상버스에 탑승하려 했으나 버스기사님이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 버스에 탑승하려고 할 때 리프트를 설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몇몇 승객들이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안 이사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버스 기사, 장애인, 일반시민, 행정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던 중 떠오른 아이디어가 바로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사회문제해결 ICT 서비스 기술개발사업인 ‘교통약자를 위한 대전 저상버스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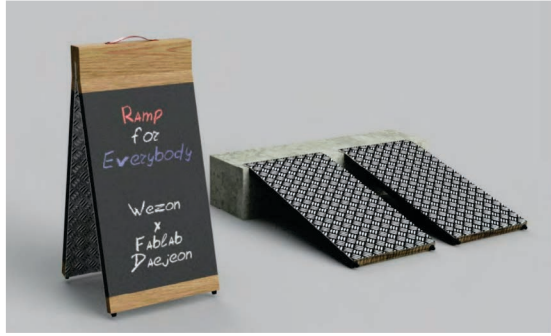
공유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만든 어플을 이용하면 저상버스 탑승을 미리 예약할 수 있고, 버스 비용을 사전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버스 탑승이 가능해졌으며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시민들한테도 미리 양해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여유롭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게 된 휠체어 장애인들은 어플 사용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서비스를 확장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받기도 했다. 어플을 개발한 위즈온 협동조합과 관계자들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버스를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편안한 일상생활과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ICT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위즈온협동조합. 이들은 이밖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그중 안정식 이사장은 두 가지 사업을 위즈온협동조합의 자랑거리로 꼽았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저희가 개발한 ‘입간판식 경사로’와 웹툰을 자랑하고 싶어요. 휠체어가 출입문을 통과하려면 경사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사로를 설치할 때 인도나 도로를 침범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에 ‘입간판식 경사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는 가게의 입간판으로 사용하다가 휠체어를 탄 고객이 왔을 시 경사로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입간판식 경사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곳곳의 상인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랑거리는 웹툰 ‘그녀들의 일상’이다. 이 웹툰은 장애인 정보접근성 콘퍼런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안건에서 시작해 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웹툰에는 장애인의 어려움은 신체의 불편함보다 사회로부터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안 이사장은 웹툰 ‘그녀들의 일상’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며 한 번 읽어보라고 자신 있게 추천했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는 물론 상인들과 휠체어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제품을 직접 제작하고 있는 위즈온협동조합.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안 이사장이 말했다.

“현재 저희 협동조합의 조합원 전체 인원 중 50% 이상이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조합원들과 총회나 이사회, 전체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나타납니다. 장애인 당사자인 만큼 더 좋은 안건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게 문제점을 알게 되면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조합 초기에는 의사결정 과정이 느리기도 했지만, 계속 조합을 운영하다 보니 한 가지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또 각종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조합원들의 추진력과 몰입도가 올라가 더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조합이 되었다.

그렇게 조합원과 조합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지켜봐 온 안 이사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의기투합해서 우리 조직이 가진 전문성을 더욱 키우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한다.

장애인 고용,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장애인의 외부 활동 수치를 눈에 띄게 증가시킨 위즈온협동조합. 이에 부응하듯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4억~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현재 위즈온 협동조합은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으며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이다. 이들의 ICT 기술로 모든 장애인이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대한민국이 기대되는 바이다.

Coop-index

협동조합 평가지표 진단결과 위즈온협동조합은 협동조합 7대 원칙 중 **제1원칙과 제5원칙**을 우수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성·사회·인종·정치·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5원칙 · 교육훈련정보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직대표, 경영자 그리고 직원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문주도층에게 협동조합의 본질과 혜택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위즈온협동조합의 자랑거리는 '수평적인 조직문화'이다.

위즈온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타인의 의견에 경청하고요. 이렇게 자유롭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안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Love Letter

To. 위즈온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위즈온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것에 걸맞게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합원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위즈온협동조합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여 지역 내에서 인정받는 사람과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일, 어려운 일 모두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1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은 장애인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이자 사회 전체의 고민이다. 이에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이사장 최영열
설립일 2015. 11
주요사업 장애인 사회서비스사업,
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Tel 064-751-5150

조합 연혁

- 2015. 11.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 설립 인가(보건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희망나래 활동센터 인가(제주시)
- 2016. 06.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017. 05. 장애인보호작업장 희망나래일터 인가(제주시)
- 2017. 12.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지정(인쇄물, 쇼핑백)
- 2018. 04.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고용노동부관장상 수상
- 2019. 01. 공공형주간보호시설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위탁 체결(제주시)
- 2019. 08. 제주형 커뮤니티케어 '제주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 2019. 12. 제5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최우수상 수상
- 2020. 04. 희망나래 복합공간 건립위원회의 개최
- 2021. 07. 제1회 제주를 밝히는 사회적가치 실현대상 최우수상 수상



성인 발달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발달장애란 해당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량 뒤쳐져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또래에 비해 언어 습득이나 운동 발달이 느리기도 하고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평생 부모 혹은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최영열 이사장은 “2015년의 어느 날, 모 일간지에서 발달장애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며 “사회·제도적으로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전했다. 이에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같은 뜻을 가진 7명의 발기인을 모아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를 설립했다.

“2015년 5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추진 기획모임을 시작으로 4차 이상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설립 당시 3명의 발기인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제주시 우수사회적기업을 설립·운영해 온 노하우가 있었고, 발기인 대부분이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다 민주적인 방식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희망나래는 ‘발달장애인의 평생 파트너,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나래’라는 미션을 정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에 힘썼다. 특히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자활, 중증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며 각종 센터와 사업을 운영해 나갔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희망나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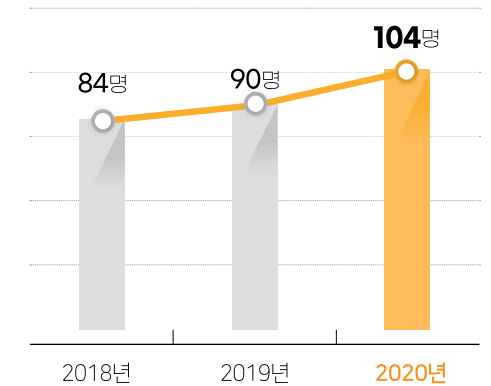
현재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는 제주지역 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총 3개의 산하기관 중 ‘희망나래활동센터’와 ‘제주시 장애인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는 최영열 이사장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먼저 ‘희망나래활동센터’는 발달장애인에게 전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다. 이 센터는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낮 동안 장애인을 맡아준다. 그리고 가족을 기다리는 약 20명의 발달장애인이 지루하지 않도록 각종 미술활동과 전통무용, 연극이나 체육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얼마 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풍물놀이, 원예치료 등 지역사회의 전문가를 강사로 채용하여 희망나래활동센터 이용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랑인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는 2019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제주시가 장애인분야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희망나래가 센터를 위탁받은 것이다. 이곳에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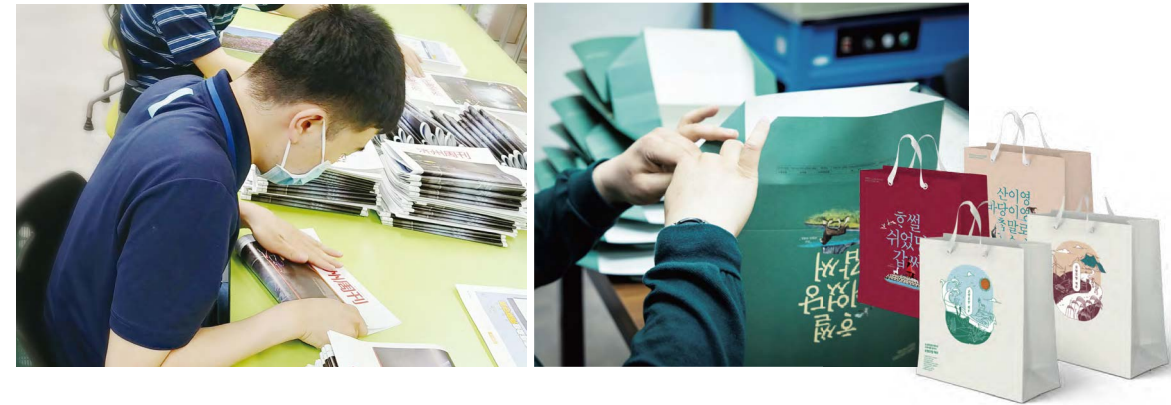
④ 조합원 수 추이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지원주택, 행복플래너 지원, 장애인 이동지원사업,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플래너는 정기적으로 40가구를 방문하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발달·뇌병변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관리와 금전관리, 위생관리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250가구는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IoT 기술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연결되어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가능한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희망나래일터’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는 장애인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이자 사회 전체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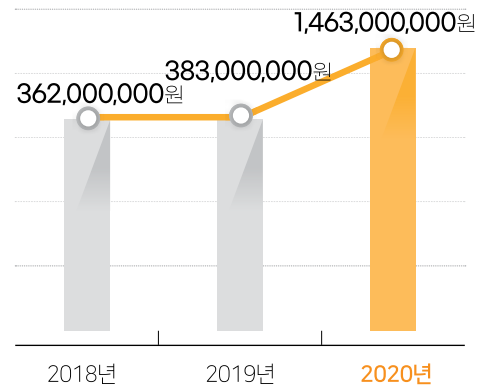


이에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는 '희망나래일터'를 설립하여 발달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희망나래일터는 디자인, 인쇄, 쇼핑백, 판촉물, 현수막, 우편발송 등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입니다. 이곳의 근로자 중 75%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발달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가능한 곳이지요.”

현재 희망나래일터에는 인쇄사업을 위한 디자이너도 존재한다. 이들은 책 디자인은 물론 포스터, 리플릿, 명함, 카드 등 다양한 인쇄 관련 제품군을 디자인하고 있다. 이렇게 디자인이 완료되면 출력, 재단, 제본, 포장, 배송까지 일터 내 모든 직원의 손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특히 우편발송사업(DM)은 안전하고 체계화된 주소록 출력 시스템을 도입하여 장애 사원들이 발송까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 또 얼마 전에는 제주도 내에서 유일하게 쇼

● 출자금 추이



핑백 후가공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으로 장애 사원들은 쇼핑백 생산부터 가공까지 전 과정을 도맡아 한다.

“최근에는 판촉물이나 인쇄사업, 쇼핑백 디자인에 희망나래일터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이나 일러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으로 아트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총 20개의 아트상품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쇼핑백을 제작하던 중 몇몇 발달장애인이 디자인에 재능을 보이자,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는 발달장애인들을 아티스트로 성장시키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티스트로 거듭난 발달장애인 10명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작품에 자부심을 가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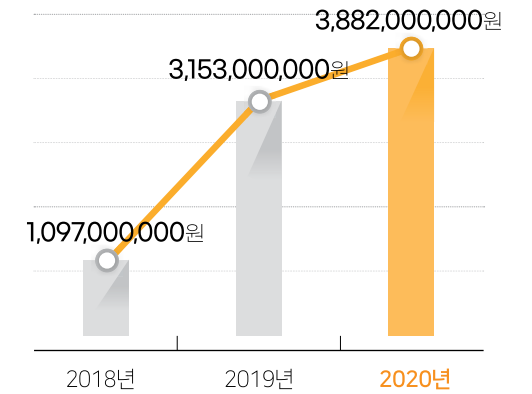
“희망나래일터는 사업에 맞는 근로 장애인을 취업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잘하는 일을 찾아 직무를 개발하고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어내는 곳이지요. 더 많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망나래가 하는, 해야 할 일입니다.”

희망나래일터가 생긴 2017년엔 단 14명의 직원뿐이었지만 제주도 내 선례가 알려지며 2018년엔 21명, 2019년에는 31명, 2020년에는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되었고 2021년 현재에는 무려 40명의 직원이 일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모든 직원은 근로계약을 당연히 작성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제주형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조합원과 후원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의 미래

희망나래의 센터와 일터는 임대건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매년 임대료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이다. 이에 최영열 이사장은 조합의 임대료로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면서 보다 전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나래 복합공간을 짓는 '희망나래 복합공간 시민자산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 설립 5주년을 맞이하

● 매출 추이





여 더 큰 도약을 위한 도전으로 100년을 이어갈 발달장애인의 터전 희망나래 복합공간 'We can do it!'을 구축하는 것이다.

“희망나래 복합공간 'We can do it!'은 시민자산화 프로젝트로서 공공의 도움 없이 조합원과 지역주민이 건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건물주가 되는 시민자산화인 것이죠.”

사회복지 전문가 및 발달장애인의 가족으로 구성된 후원자 76명과 직원 조합원 24명 등 총 100명의 조합원은 출자금을 증자·증액하여 15억 원의 자본을 구축했다. 이에 최 이사장과 조합원들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아라동에 부지 310평을 매입하였고,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물을 짓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복합공간 준공이 완료되면 저희 희망나래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넓

고 쾌적한 공간에서 전문적인 사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특히 운동을 위한 다목적실과 심리안정실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이죠. 또 제주 내 많은 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수준 높은 사회복지를 위한 발걸음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는 도내 각종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사업과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눈에 띄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바로 '영양 밀반찬 지원사업'이다.

“영양 밀반찬 지원사업은 홀로 사는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밀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안정과 건강을 유지하고 밀반찬을 전달함으로써 안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

회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정기적인 안부를 통해 사회문제인 고독사를 해결하고자 시작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까지, 제주도 내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 이에 안주하지 않고 2020년에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제주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까지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제주도민 인식 조사, 제주형 사회적 가치 정립 및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 개발, 사회적 가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가치 측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제고하기도 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는 발달장애인의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를 만들어가는 초능력을 발휘하는 중입니다. 이는 제주도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함이지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희망나래는 그 어떤 것에도 주저하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의
자랑거리는
'오래 달리기'이다.

자랑거리를 고민하던 중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오래 달리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장애인들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오래, 멀리 달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준 직원, 너무 고마워요~

Love Letter

To.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여러분, 사회적협동조합희망나래는 제주도의 모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 많은 의견을 묻고, 들으며 앞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면 꼭 그 기대에 부응하고 나누는 희망나래가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2 세종우리협동조합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공동체가 되어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다

우리 사회에는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치매 환자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이다. 이들은 혼자서 사회를 살아가기가 어려워 누군가의 손길과 도움이 요구된다. 하지만 혼자라면 힘들고 어려웠을 일을 협동조합이라는 조직과 지역사회가 함께해 실현 가능한 일로 만든 이들이 있다. 바로 '세종우리협동조합'이다.

이사장 김승응
상임이사 최정관
설립일 2015. 07
주요사업 노인 돌봄 및 주간보호,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Tel 044-865-3318

조합 연혁

- 2015. 07. 세종우리협동조합 설립
- 2015. 09. 노인장기요양기관 유다원센터 인가
- 2016. 06.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드림라운센터 지정
- 2018. 10. 세종우리 사회교육원 설립
- 2019. 08. 노인주간보호 우리어르신 돌봄·재활센터 설립
- 2020. 07. 고용노동부 제2020-159호 사회적기업 인증
- 2021. 01. 세종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설립
세종시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활동센터 설립
- 2021. 10. 세종우리협동조합 부설연구소 설립



‘일터공동체’의 산실 세종우리협동조합

아직 지역 곳곳엔 사회적으로 열세한 위치에 있는 시민들이 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다. 이에 최정관 이사는 과거 10년간 타 지역에서 노인 및 장애인 관련 복지사업의 실무 책임자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인 세종시로 귀향하여 복지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2015년 7월, 세종우리협동조합을 설립추진했다.

“협동조합은 재물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이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조합원이 주인이고 사업의 이용자이며 서비스 제공자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고 함께 일하는 일터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세종우리협동조합은 일터공동체를 지향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꾸린 조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최정관 이사의 뜻이 닿았는지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조합원들이 모여면서 지역의 사회문제를 논의하고 복지 발전을 선도하는 조합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세종우리협동조합의 미션선언문에서도 ‘일터공동체’라는 단어는 빼놓을 수 없다.

미션선언문

서로 돕고 함께 일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일터공동체를 지향하여 조합원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다.

2020.0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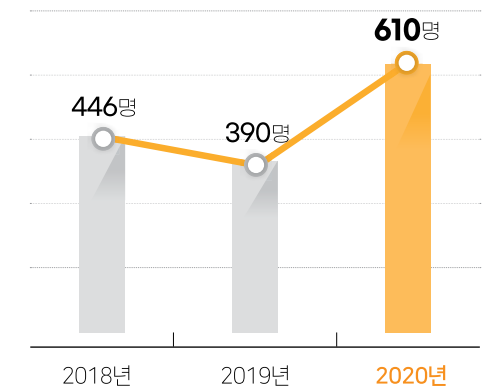


“세종우리협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우리 조합을 대한민국 0.1%의 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조합의 목표와 발전에 대한 구성원의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관의 공동 사업에 적극 협조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자로서 사회공헌의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노인 돌봄과 더불어 장애인 돌봄에도 기여하고자

세종우리협동조합은 현재 크게 3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돕는 ‘노인재가요양서비스’. 두 번째, 중증장애인의 가사와 사회생활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세 번째, 쇠약해진 어르신의 돌봄과 재활을 돕는 ‘어르신 돌봄·재활서비스’이다.

조합원 수 추이



“먼저 어르신들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재가복지센터와 주간돌봄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다른 도움이 필요할 경우 타 기관과 연계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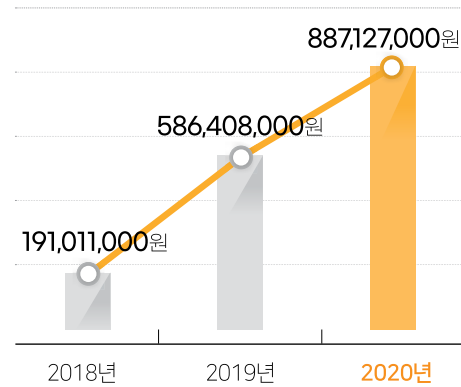
세종우리협동조합은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센터와 주간돌봄재활센터 운영만 하는 게 아니다.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활동지원센터에서는 주중 일정시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성을 향상시키고, 개인별 장점을 발굴하여 직업능력 향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자택에 방문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죠.”

최정관 이사는 세종우리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 출자금 추이



세종시 내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세종우리협동조합은 노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 자격증 교육을 위한 ‘한누리요양보호사교육원’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원의 경우 양질의 노인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설립했다. 한누리요양보호사교육원 운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 확장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미용봉사를 해드리며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복지용품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우리협동조합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 동안 기반을 튼튼하게 닦았다면 앞으로의 4년은 세종지역의 사회복지를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하고자 한다.

“각종 센터의 설립으로 어르신 일자리 개발과 더불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할 것이며 향후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종우리협동조합이 바라보는 미래

현재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나타나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본인이나 보호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런데 최정관 이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잘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법령의 한계로 지원이 제한되거나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세종우리협동조합은 문제점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프리미엄 서비스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연구와 더불어 세종우리협동조합에선 어르신들의 정서적 행복을 돕는 케어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케어팜 프로그램은 주간보호센터의 유휴공간에 시설을 갖추어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에서 꽃과 채소류 등을 가꾸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활동은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과 치유를 돕는 역할을 한다.



“케어팜 프로그램 개발에 이어 최근에는 스마트 푸드 연구개발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푸드 연구개발 사업은 고령친화 식품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먹기 쉽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 업체인 한국효소와 협력하여 연구에 매진 중입니다.”

스마트 푸드 및 스마트 팜은 조합의 미래성장 사업이자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최정관 상임이사. 현재 스마트 푸드 사업의 연구 기반을 조성한 상태이다. 앞으로 조합부설 ESG 연구소에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내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세종우리 협동조합은 적극 나서 그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여념이 없다.

우리 함께 잘 살아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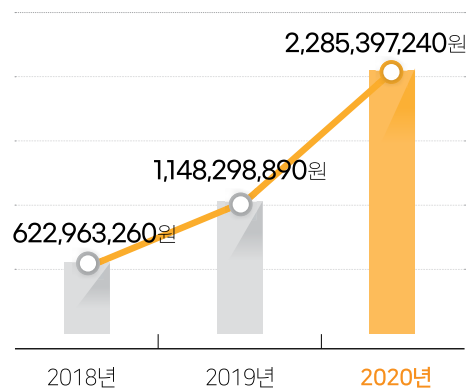
최정관 이사는 지금까지 지역사회와의 협업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온 세종우리 협동조합이 뿌듯하다고 전한다. 기본적으로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의 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13개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실버사랑주택의 공동식당에 투명 기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협동조합 수입금으로 예다음 사회협동조합에 300만 원을 후원·기부했죠. 이렇게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세종우리 협동조합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는 최 이사와 조합원들. 그 결과로 현재 고용한 직원 240명 중 취약계층이 무려 130명 정도로 취약계층 고용률이 50%가 넘는다. 그중 85%는 55세 이상의 여성이며, 15%는 55세 이상의 남성이다. 또 경력단절여성 약 10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6년간 조합을 운영해 온 최정관 이사. 그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3가지 있다고 강조한다.

매출 추이



“첫 번째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동조합의 발전과 성장의 과실을 조합원과 공정하게 공유해야 하는 것, 세 번째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를 이루며 참여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 이사의 말에서 조합과 조합원, 지역사회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단지 '우리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닌 '모두 함께 잘 살아보세'를 강조하는 세종우리협동조합. 그들이 함께하는 세종시의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Coop-index

협동조합 평가지표 진단결과 세종우리협동조합은 협동조합 7대 원칙 중 **제1원칙과 제7원칙**을 우수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책임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성·사회·인종·정치·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7원칙 · 커뮤니티 관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승인한 정책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



세종우리협동조합의 자랑거리는 'ESG-300'이다.

ESG-300이란 세종우리협동조합이 300년 이상 유지되고 발전하고자 하는 지향점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우리협동조합 부설 ESG 연구소를 세종에 최초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를 연구·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Love Letter

To. 세종우리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조합이 해마다 성공적인 발전의 금자탑을 쌓아 가는 데 조합원 여러분의 도움과 성원은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의 발전과 성공의 열매를 조합원 여러분과 공정하게 나누고, 향후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여러분의 우선 참여를 약속드립니다. ESG-300! 그 힘으로 발전하고 성장하여 대한민국 1등 협동조합을 만들어 나갑시다.

같이의 가치를 쌓다

2021 혁신형 협동조합 사례집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정현근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소 (13292)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6~8층

홈페이지 <https://www.socialenterprise.or.kr>

전화번호 031-697-7700

팩스 031-697-7889

편집·디자인 승일미디어그룹(주) 1800-3673

ISBN 979-11-92212-02-9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책자의 내용 및 활용에 관한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발간등록번호

11-B552745-000018-01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비매품/무료



9 791192 212029
ISBN 979-11-92212-02-9